

'올 뉴 크루즈' 양산 축하행사 개최

한국지엠 군산공장, 2월 본격 고객 인도 앞두고 무결점 제품 생산 결의 다짐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6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올 뉴 크루즈(All New Cruze)'의 양산을 축하하고,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쉐보레 올 뉴 크루즈의 성공적인 양산을 축하하고, 무결점 품질의 제품 생산으로 고객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지엠 제임스 김(James Kim) 사장, 생산부문 조연수 부사장, 군산공장 김선홍 본부장을 비롯, 신차 개발 및 생산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김관영 국회의원, 군산 유관기관장, 전북자동차산업교류회 등 시민사회단체장들께서 대거 참여하였으며, 군산 지역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쉐보레(Chevrolet)가 6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올 뉴 크루즈(All New Cruze)'의 양산을 축하하고,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은 개막커팅, 임직원 시상, 결의문 낭독, 그리고 품평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품평회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차급을 뛰어넘는 올 뉴 크루즈의 높은 상품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한국지엠 제임스 김(James Kim) 사장은 "지난해 쉐보레 말리부, 카마로 SS, 트랙스 등에 대한 고객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회사 출범 이후 최대 내수판매 실적을 기록했다"며, "올해도 신차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며, 특히 본격 양산에 돌입한 올 뉴 크루즈의 완벽한 제조 품질을 확보해 프리미엄 콤팩트 세단을 추구하

는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쉐보레 올 뉴 크루즈 본격 양산을 축하한다"며, "올 뉴 크루즈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호응이 국내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쉐보레 올 뉴

크루즈의 성공적인 양산을 축하한다"며, "올 뉴 크루즈를 생산하는 군산공장과 나아가 군산지역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산에 돌입한 쉐보레 올 뉴 크루즈는 차급을 뛰어넘는 차체 크기를 바탕으로 대폭 확장된 실내공간을 갖췄다. 더불어 최신 기술인 터보 엔진이

지원하는 역동적인 주행성능 및 첨단 안전 시스템을 대거 탑재, 국내 준중형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미디어 공개 행사 이후 폭발적인 고객 관심을 끌고 있는 올 뉴 크루즈는 2월 8일과 9일 양일간, 미디어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시승행사를 개최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2018 싼타페' 출시

현대차, 상품성·가격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는 6일 사양 조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성을 강화한 '2018 싼타페'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8 싼타페는 합리적 가격에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포함한 신규 트림 '벨류 플러스(Value Plus)'를 추가했다.

그동안 상위 트림, 선택 사양으로만 적용됐던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전후방 주차보조 시스템(PAS), 8인치 내비게이션(후방 카메라 포함),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등이 기본 적용됐다.

현대차는 더불어 2017년형 모델에 있던 기존 주요 트림에 사양을 추가하면서도 가격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엔트리급 트림인 스마트와 프리미엄 트림은 각각 오토라이트 시스템과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PAS)을 추가했음에도 가격을 인하·동결했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은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2018 싼타페의 판매 가격은 ▲ R2.0 모델 2795만~3295만원 ▲ R2.2 모델 3485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싼타페 원밀리언' 모델은 기존 1개 모델에서 3개 모델로 확대했다. 해당 모델은 전용 외관 TUX 파츠와 내부 고급 소재 적용을 통해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각종 고급 사양을 탑재했다.

2018 싼타페 원밀리언의 가격은 R2.0 엔진이 적용된 ▲원밀리언 스타일 트림이 3295만원 ▲원밀리언 트림이 3585만원, R2.2 엔진이 적용된 ▲원밀리언 얼티미 트림은 3760만원이다.

현대차는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부터 싼타페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이 싼타페를 재구매시 1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2018 싼타페' 구매시 JBL 고급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공한다.

또 싼타페의 국내 판매 100만대 달성을 기념해 2017년형 싼타페를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 기타 판매조건과 중복시 최대 500만원 이상 할인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 기술 리드 2.0 터보' 모델을 오는 3월 추가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표원 "갤노트7 발화 원인, 배터리 결함 탓"

삼성과 같은 결론 "스마트폰엔 문제 없었다"…美 CPSC 입장도 비슷

정부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을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갤노트7의 1·2차 리콜 원인이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삼성전자와는 별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국책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약 3개월간 갤럭시7의 발화 원인에 대해 조사했다.

국표원은 이날 발표에서 "배터리 음극부 끝단이 곡면부에 위치한 점, 셀

리를 측면부의 음극관 돌림 현상 등을 직접 확인했다"며 "배터리에서 발화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와관련,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하고, 스마트폰 제작과정의 안전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등 시장출시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리콜제도 개선, 배터리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시장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의 발표가 삼성전자의 자체 조사 내용과 동일하게 결론지어지면서 '갤노트7' 사태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 측은 "갤노트7에 들어간 2개의 다른 배터리에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의 전문가들도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안전인증 회사인 UL, 미국 과학기술 분야 분석 전문 기관 엑스포넨트(Exponent)는 기기 자체에서 발화와 연관된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갤럭시7에 들어간 두 회사의 배터리가 다른 문제로 발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일 글로벌 검증 기관 튀브(TUV) 라인란드는 갤럭시7 제조 공정과 배터리 물류 시스템과 폰 조

립 공정 운영상의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여기에서는 배터리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기관인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는 발화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계속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자체 발표 이틀 뒤에 배터리 관련 안전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내린 최종 결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구미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후이저우와 톈진 등 자사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곳에 갤럭시7 발화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장소를 마련하고 700여명의 연구원을 투입해 제품 20만대, 배터리 3만대로 대규모 총·방전 시험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앞으로 한국,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외국인, 6개월만에 채권 순투자 전환

주식 1조7860억원 순매수

국내 채권에서 자금을 빼던 외국인이 6개월 만에 순투자로 돌아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채권에 1조6650억원을 순투자했다. 순투자는 순매수에서 만 기상환 금액을 뺀 것으로,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는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아시아(1조5000억)와 유럽(4000억)이 순투자를 주도했으며 미국(1000억)도 소폭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90조9000억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의 5.7%를 차지했다.

채권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미 대선과 금리 인상으로 신흥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며 자금이 유출됐으나 최근 들어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

주식시장은 두 달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달 외국인은 주식 1조7860억원을 순매수했다.

미국(1조4000억)과 아시아(4000억)가 순매수한 반면 유럽(3000억)과 중동(2000억)은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502조원으로 전체 시총의 32% 수준이다. 전월보다 20조 4000억원 증가했다. /뉴시스